

# ‘독립운동가 가족’ 위한 전시관 개관

### 일제강점기 옥바라지의 의미 되새겨

### 무형적 가치 흔적으로 남긴 첫 사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를 옥바라지했던 가족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를 기억하는 작은 전시공간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맞은편(독립문역 3번출구 앞)에 20일 문을 연다.

가족과 주고받았던 옥중 편지와 옥바라지 일화, 과거 서대문형무소 주변 동네였던 무악재 골목의 옛 풍경 등을 통해 삼천리 강토 전체가 감옥이었던 일제강점기 ‘옥바라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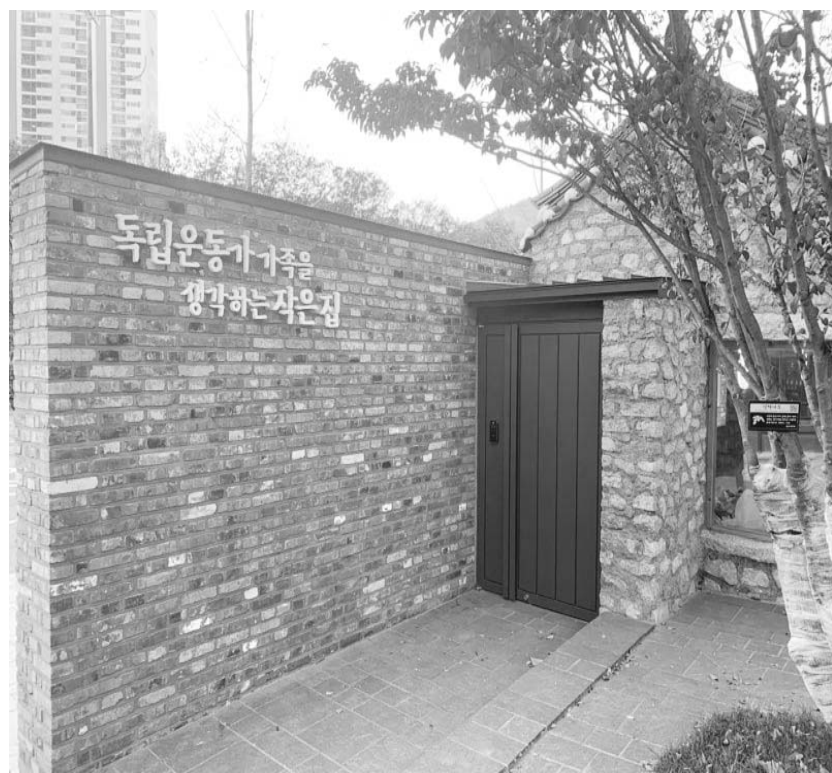
서울시는 독립투사들이 혹독한 수감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자 독립운동의 조력자였지만 독립투사 뒤에 가려졌던 가족들의 삶을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공간은 과거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렸던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양보로 조

성한 공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2016년 당시 골목 보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서울시가 개입해 수개월간 논의와 대화를 이어간 끝에 독립운동과 옥바라지와 관련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을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무형적 가치를 흔적으로 남긴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향후 이런 노력을 ‘서울역사 흔적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을 조성 완료하고 2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은 독립문역 3번출구 앞에 소담한 한옥 건물로 조성됐다. 연면적 약 78㎡에 2개 전시공간(전시실 A동, 전시실 B동)으로 구성된



들어가지마자 만나는 ‘전시실 A동’은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삶과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공간이 갖는 의미와 면화와 관련된 일화, 옥중편지와 옥바라지를 했던 가족들의 삶과 마음을 담아 작업한 바느질 콜라주 작품 등이 전시된다.

이어지는 전시실 B동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무악재 골목의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당시 모습과 무악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흔적을 되새겨 보는 공간이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은 화요일~토요일(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매주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삼일절·광복절 개관)

## 박강훈 교수, 다언어 교육모델 구축 장관상



박 교수는 다언어 교육 모델을 구축한 공로로 인문사회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외국어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박 교수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포함됐다.

박 교수는 그동안 다문화 연구에만 치중된 학계 동향에 반발, 다언어 연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학계에서도 다언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계기는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다언어 교육 방법론 및 모델 구축 연구 등은 박강훈 교수가 최초이다.

박강훈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인공신경망 번역 엔진을 활용한 다언어 습득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이다. 대상 언어의 확대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전북 전주대학교는 박강훈 일본어문화학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19 교육부 연구 우수성과 50선 선정’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인문사회 30건, 한국학 5건, 이공분야 15건을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으로 선정할 바 있다.



## 신촌 연세로는 벌써 크리스마스

서울 서대문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낭만을 선사하기 위해 신촌 연세로와 명물 거리에 대형 트리와 경관조명으로 ‘크리스마스 거리’를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년 연세로만 밝혔던 경관조명이 올해는 명물거리까지 확대돼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다. 밤하늘 내리는 눈을 연상케 하는

LED 은하수 램프와 겨울나무를 감싼 조명 등이 내년 1월 말까지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평소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사랑받는 신촌이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가족, 친구, 연인들의 나들이와 사진촬영 명소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뉴스1



안 내

“생활소식을 실어드립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061)732-0332 한국노총 순천노총 상담소 (061-721-7363)한노총 여수 상담소 (062-685-5233)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 13세 아동 및 정신 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0062-232-1375)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 주부, 가족폭력, 성, 청소년 고민 등(062-363-5599)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코올상담센터 무료 알코올상담=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222-56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 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연탄배달 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체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장애인사랑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 (522-8909)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체육 동화인 및 선수들을 모집 광주광역시장애인 체육회 상담전화(1577-7976)

▲빛고를 한사랑 회원모집=영아 및 지체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010-2444-4500)

▲남녀 배구회원 수시모집=수시(매주 월, 수, 금, 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 학교 문의 (011-612-2112)

▲영상과 브레인 회원 모집=시나리오(8mm) 스테디캠, 움직임, 드라마(구성작가) 등 공동창작활동 관심있는 사람. 20~30대 응모 가능. 40대는 경력자

▲빛고를 한사랑 회원모집=영아 및 지체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원·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이 있는 분. 문의 062-363-5599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윌트,팝 062-531-1769

스포츠,윌트,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전남 MC폼바 회원 모집=폼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019-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062-267-3700)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윌트,팝 062-531-1769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문화융성**  
관람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시행산업통감감독위원회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